

영광군, 제16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성료

치매인식개선 캠페인·치매예방 공연 펼쳐

영광군(군수 이병노)은 최근 영광 문화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치매대상자와 가족, 유관기관 종사자, 치매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만드는 치매친화사회'라는 주제로 제16회 치매극복의 날을 기념하는 치매인식개선 캠페인과 치매예방 공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치매극복의 날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병 협회와 함께 치매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9월 21일로 지정했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치매예방을 위한 웃음치료로 각설이 웃음한마당과 신체활동 및 치매예방을 위해 150여 명의 경로당 어르신들이 참

석해 집불나타 공연으로 그동안 같고 닦은 기량을 발휘해 큰 박수를 받았다. 강종만 군수는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 치매극복과 치매예방을 위해 어르신들이 혼연일체 돼 준비한 집불나타 공연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며 "치매로부터 가장 자유롭고 안심할 수 있는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광군에서는 치매예방과 조기검진을 위해 관내 전 경로당을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9988 뇌청춘 치매예방 건강교실과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쉼터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또한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위해 헤아림 가족교실, 쉼터, 치매 진단비와 치료관리비를 소득에 상관없이 전군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치매안심센터 접근성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치매안심택시운영 등 치매친화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경률 기자

나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선정 떡세트·배즙·배살빵·온곡쉐이크 등 4종 추가

나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떡종합세트, 파우치형 나주배즙, 나주배살빵, 온곡쉐이크 등 풍성한 답례품이 더해졌다. 시는 추석 대명절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시 제공되는 답례품 4개 품목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나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농축수산물 15건, 가공식품 13건, 생활용품 12건, 관광서비스 4건, 지역상품권 2건 총 46건으로 구성돼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의 30% 만큼 답례품 포인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나주시는 최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0만 원 기부를 염두에 두고 3만 원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준비했다. 추가 선정한 답례품 또한 3만 원 상당의 품목들로 구성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

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다"며 "지역에 기부도 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받고, 새롭게 추가된 답례품도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나주만의 특별한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시는 올해 모인 기부금을 활용해, 내년부터 가치 있고 소중한 기금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보답할 예정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이외 지역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지역소멸 대응, 주민복지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세액공제 금액은 10만 원까지는 100%, 10만 원 초과분은 최대 500만 원까지 16.5%다. /김동철 기자

담양, 배움의 가치 나누는 여성농업인역량 강화 교육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9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담양의 가치를 빛내줄 여성농업인 미래지도자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이 교육은 농촌 여성의 다양한 분야의 능력 개발을 통해 잠재력을 일깨워 주고, 독립된 농업경영인으로서 역할을 활기차게 수행해 행복한 농촌생활을 영위하도록 3과정의 교육을 각 5회 30명씩, 총 15회 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은 농작업 매듭활용교육, 탄소중립 실천교육, 농산물 가공교육으로 구성됐다.



장성군이 '명품 샤인머스켓 산지'라는 자부심을 이어가기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군은 최근 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고품질 포도 출하 마인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성군 제공

농작업 매듭활용교육에서는 시설 하우스 재해예방을 위한 매듭 매듭, 과제류 유인 매듭, 생존매듭 등을 교육한다. 탄소중립 실천 생활기술교육은 천연재료를 이용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생활용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농산물 가공교육은 담양의 주 생산물인 쌀, 딸기, 블루베리, 방울토마토를 이용한 가공식품 교육으로 채웠다. 담양군 관계자는 "여성농업인들이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보급할 수 있는 생활기술 교육을 통해 행복한 농촌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장진성 기자

장성군, 고품질 포도 출하 마인드 교육 실시

장성군이 '명품 샤인머스켓 산지'라는 자부심을 이어가기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군은 최근 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고품질 포도 출하 마인드 교육'을 실시했다. 포도는 유통 단계에서 숙성되는 후숙 과일이 아니어서 품종 고유의 당도, 향기, 빛깔 등을 갖췄을 때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은 교육에서 △비파과 당도 측정기로 측정

포도송이 하부 당도 16브릭스(brix) 이상 △머스켓 고유의 향 △열은 노란색을 띠 정도로 완숙했을 때 포도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강도 높은 품질 관리 방안, 저품위 샤인머스켓 출하 근절대책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지난 2017년부터 샤인머스켓 재배에 뛰어난 장성군은 전라남도 우수원예작물 품질평가 대상을 수상

하는 등 뛰어난 품질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전국적인 가격 하락과 품질 저하로 군도 어려움을 겪었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박언정 소장은 "샤인머스켓이 명품 과일로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품질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농가에 당부했다. /유광중 기자

화순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계룡리슈빌서 진행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최근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계룡리슈빌 정문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화순팍을 홍보했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농주농협에서 신선한 지역 농축산물(샤인머스켓, 방울토마토, 정육 등)을 판매했고, 샤인머스켓과 우렁이 초무침 등 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화순팍 홍보 부스를 통해 화순팍에서 판매 중인 농특산물(보리굴비, 요거트, 기정떡, 토마토즙 등)을 선보였다. 한 입주민은 "평소에도 화순은 많이 왕래하는 데 이렇게 많은 농특산물이 있는지 몰랐다"라며 "화순의 신선한 농특산물을 집 앞에서 바로 살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구복규 화순군수는 "곳은 날씨에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화순 농특산물에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라며 "특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화순팍에 입점 상품을 늘리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홍보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재 화순팍에서는 9월 27일까지 전상품 20% 할인 쿠폰(최대 3만 원)과 100만 원 이상 구매자에게 10% 추가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신규회원에게는 1천원 할인 쿠폰을 추가로 지급하는 추석맞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팍 누리집(www.hwasunfarm.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문수 기자



청정갯벌
무안갯벌낙지

낙지의 고향!
무안을 말하다...





